

나주혁신도시 입주자 10명중 7명 '외지인'

■ 2013년~2017년 4년간 인구 순유출입 조사

총 2만6840명 이주... 전북 이어 두번째로 많아
가족동반 이주율 늘어 추후 인구유입 긍정 효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입주자 10명 중 7명은 타지역에서 이사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타지역 인구의 유입비중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인구유입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용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혁신도시의 순유출입 인원을 조사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전체 유입인구 12만3131명 중 전북혁신도시가 27.7% 수준인 3만41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 빛가람혁신도시가 21.8%인 2만6840명으로 전국 2번째를 기록했다.

두 지역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총 6만995명(49.5%)으로 절반 수준에 달하는 등 호남지역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수도권 등 타시·도로부터 이사를 온 사람들의 비중이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높았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전체 유입인구 2만6840명 중 1만8358명(68.4%)은 타시·도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36.5%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같은 전남지역에서 이주해온 인구는 5970명(22.2%) 뿐이었다. 다만, 다른 지방에서 이사를 온 인구 중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은 5456명(20.3%)으로 전국 평균인 19.9%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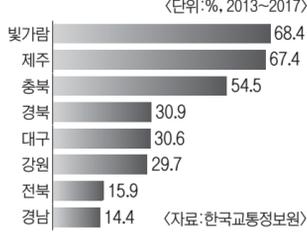
전국에서 유입인구가 가장 많았던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타 지방에서 이사는 주민은 5426명(15.9%)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이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이주자도 4119명(12.1%)에 그쳤다. 유입인구의 84%에 달하는 2만8729명이 전주와 완주 등 주변 도시에서 살다 이주한 전북혁신도시에 비해 빛가람혁신도시의 인구유입 효과가 훨씬 크다는 분석이다.

그 외 전국 혁신도시의 타지역 인구유입 비율은 ▲제주 67.4% ▲충북 54.5% ▲경북 30.9% ▲대구 30.6% ▲강원 29.7% ▲전북 15.9% ▲경남 14.4% 순이었다. 부

산과 울산혁신도시는 오히려 각각 489명, 1313명씩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와 비교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증가하고

■ 전국 혁신도시별 타지역 이전율



있다는 점도 추후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빛가람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지난해 35.3%(2238명)에서 38.9%(2802명)로 3.6% 포인트 증가했다.

전북혁신도시(48.9%)와 제주(48%), 부산(47.7%)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단신 이주인원 역시 지난해 42.5%(2690명)에서 35.9%(2583명)으로 6.6%포인트 감소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전력은 4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와 함께 한전 본사에서 한국전기연구원 및 비츠로테크 등 25개 기업 및 기관과 에너지 벨리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한전, 한국전기연구원·비츠로테크 등 25개 기업·기관과 투자협약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본사에서 협약식 가져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4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본사에서 한국전기연구원 및 비츠로테크 등 25개 기업·기관과 에너지벨리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인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중견·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전력기자재 인종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기관이 참여해 에너지산업에 특화된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특히 한국전기연구원의 에너지벨리 분원 설립으로 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제품 공인인증시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 전력 ICT 분야 기술선도기업인 송암시스템과 전력기자재 관련 중견기업인 비츠로테크와 협약을 체결해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집적'이라는 에너지벨리 조성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한전은 고부가가치 에너지기업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350개사와 협약 체결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60%인 투자 실행률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단순히 투자기업 유치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수렴해 기업육성 지원제도를 개선해 가고 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김중갑 한전 사장은 "에너지벨리 투자기업들이 지역과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에너지벨리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제44회 전국품질분임경진대회에 참가한 한전KPS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KPS 제공>

한전KPS, '품질분임경진대회' 금상 2팀 동상 1팀 수상

한전KPS(사장 김범년)는 '제44회 전국품질분임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금상 2팀과 동상 1팀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품질분임경진대회는 '산업계의 전국체전'으로 불리며, 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지역예선을 통과한 268개 팀이 8000여명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한전KPS는 보령사업처 '더드림분임조'와 삼천포사업소 '스마일분임조'가 현장개선 분야에 참가해 각각 금상과 동상을 수상했으며, 한빛3사업처 '반개분임조'가 안전품질분야에서 금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국가 품질향상을 통해 전 산업현장에 보급될 예정으로, 시상식은 오는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김범년 사장은 "한전KPS의 완벽한 정비품질 체계 구축과 철저한 교육훈련을 통해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끊임없는 혁신과 고품질 정비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까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aT, 농식품 수출 동향 담긴 '수출국가정보zip' 발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4일 우리 농식품의 주요 수출국인 34개국의 주요 수출 동향 등이 담겨 있는 '수출국가정보zip' (사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집은 '미주&유럽', '일본&중화권', '아세안', '아태&기타국' 등 총 4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수출국의 농업 및 수출입현황, 농식품시장 및 유통현황, 통관 및 검역과 관계된 수출입프로세스 등을 국가별 요점정리해 필수정보를 압축해 농식품 수출 초기 단계의 업체와 시장다변화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글로벌 식품시장의 특징은 글로벌 식품안전기준강화, 채식인구의 증가, HMR(가정간편식) 열풍, 온라인 식품시장의 성장 등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맞춰 국가별 주목할 만한 핵심 이슈 품목과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식품관련 인증취득, 라벨링 등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도 다수 수록돼 있다.

특히 제3권 아세안편에서는 한류의 근



원자(자병호)는 4일 우리 농식품의 주요 수출국인 34개국의 주요 수출 동향 등이 담겨 있는 '수출국가정보zip' (사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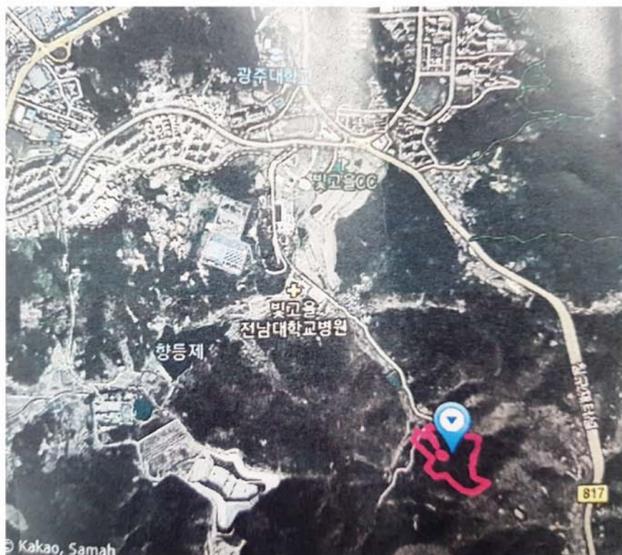
이번 발간집은 '미주&유럽', '일본&중화권', '아세안', '아태&기타국' 등 총 4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수출국의 농업 및 수출입현황, 농식품시장 및 유통현황, 통관 및 검역과 관계된 수출입프로세스 등을 국가별 요점정리해 필수정보를 압축해 농식품 수출 초기 단계의 업체와 시장다변화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글로벌 식품시장의 특징은 글로벌 식품안전기준강화, 채식인구의 증가, HMR(가정간편식) 열풍, 온라인 식품시장의 성장 등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맞춰 국가별 주목할 만한 핵심 이슈 품목과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식품관련 인증취득, 라벨링 등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도 다수 수록돼 있다.

특히 제3권 아세안편에서는 한류의 근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